

하세가와 저택

하세가와 저택은 니가타현에 보존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입니다. 이곳은 15 대에 걸쳐 당시 에치고국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부유하고 세력이 큰 농가인 하세가와 가문의 저택이었습니다.

하세가와 가문의 초기 세대는 무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현재 이 저택이 세워진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농가가 되었고, 머지않아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는 인근 경작지의 약 7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이 180ha(헥타르)의 경작지에서 약 240톤의 쌀을 한 번에 수확했습니다. 1706년 발생한 큰 화재로 '본채'는 전소되었고, 현재의 주택은 1716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가오카시와 주변 지역은 매년 폭설이 내리기 때문에 주택 구조는 쌓이는 눈의 부하를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한 튼튼한 목재를 사용해 지붕과 지주의 강도를 높여서 무너지는 현상을 막습니다. 지붕은 대량의 눈이 쌓이지 않도록 깊고 경사지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로리 화로의 불에서 발생하는 열을 집안에 모으기 위해 초가지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택은 본채(오모야), 별채(신자시키), 서고(조구라), 그 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문을 지난 끝에 본채가 세워져 있으며, 거기에서 거대한 지붕과 멋진 현관 등, 건물의 정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는 하세가와 가문이 몇 세기에 걸쳐 수집한 에도 시대의 현지 예술가가 만든 명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드물게 다다미가 깔린 실내 화장실도 남아 있습니다.

저택 전체는 해자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해자를 건너려면 정문이나 뒷문을 통해야 합니다. 해자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본채에서 뒤뜰을 지나서 있는 저택의 안쪽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는 옛날에 존재했던 고메구라(쌀 창고)를 복원한 것입니다. 박물관에는 하세가와 가문의 아카이브에서 다양한 유품과 사진,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이 지역에 거주했던 15대에 걸친 일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세가와 저택은 1982년에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세가와 저택

개관기간 : 4월 1일~11월 30일

개관시간 : 9:00~16:30

입관료 : 성인 420엔 / 어린이 210엔

오시는 길: 쓰카야마역에서 도보 15분 또는 나가오카역에서 버스로 직행. 버스는 하세가와 저택 바로 앞에서 정차합니다.